

서울 주보

제2610호
2026년 4월 26일(가해)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WYD
SEOUL 2027
개최까지
D-464



입당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ㄱ,36-41

화답송 |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1베드 2,20ㄴ-25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 요한 10,1-1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정민하 울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요한 10,1) 이 말씀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 참된 목자의 사랑을 묵상하게 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이끌어 주십니다.

교정 사목을 하며 교도소 안에서 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상처로 마음을 굳게 닫은 채, 매주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도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사 후에 그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신부님, 늘 제 이름을 불러 주셔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신부님이 믿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린 경험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해 주고 기다려 주는 마음임을 교정 현장에서 자주 깨닫습니다.

성소 주일을 맞아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소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지켜 가는 부모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이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지탱해 주는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성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 문은 막힌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열어 주는 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절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흩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은총이 예수님이라는 그 문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그 확신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어찌면 성소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한 걸음 내딛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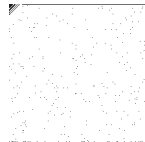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특히 주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있는 이들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의 길을 걷고 계신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안에서 평화와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림 묵상

목자 | “저곳에서 나 너의 것이 될 터이니, 이곳에서 너 나의 것이 되어 다오.” 어느 노사제께서 금경축의 인삿말로 들려주신 이 말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들이 간직했을 수많은 꿈과, 혀 밑에 눌러둔 세상의 언어들에 상상하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멈춤의 자리에서 바라본 목자의 이정표를 따라, 우리도 저들과 함께, 끝까지 하느님의 사람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최인아 마리아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회는 새것과 젊음을 우선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나이든 사람을 환영하지 않으니 나이와 함께 불안이 커지죠. 이렇다 보니 십 대 시절을 암전하게 보낸 사람도 마흔 즈음이 되면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흔 초반에 ‘진짜 사춘기’를 겪었어요. 살아 온 세월은 제법 되고 살 날도 꽤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 지금처럼 살면 돼?’라는 질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땐 근본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던 것을 계속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죠. 허나, 브레이크가 걸리고 비상음이 울리면 비로소 돌아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바꾼다면 뭘 바꾸나.’ 마흔 무렵, 저는 제 인생의 근본을 들여다봤고 그런 끝에 일 년 휴직을 하고 ‘방황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례를 떠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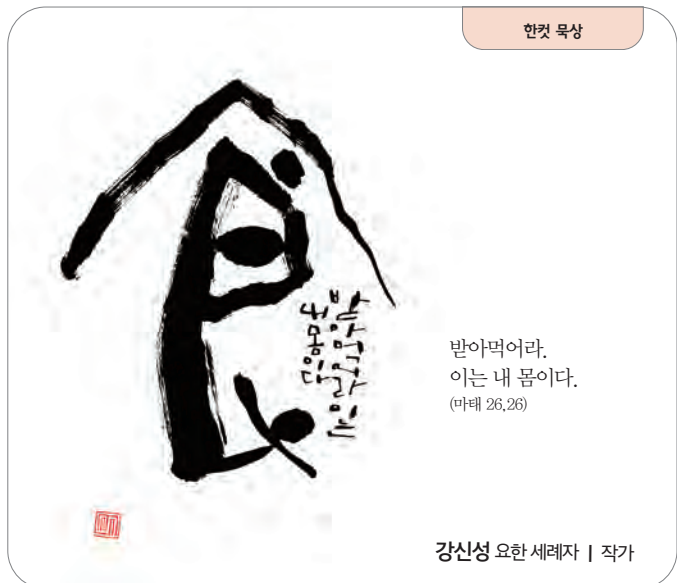
비행기와 기차를 갈아타며 프랑스 생장피에드포르(Saint-Jean-Pied-de-Port)로 갔고 거기서부터 꼬박 35일을 걸어 산티아고(Santiago de Compostela)에 닿았습니다. 대성당에 도착한 날 미사에서 신부님이 “오늘 아침 꼬레아노 한 사람이 이곳에 당도했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결국 800킬로미터를 다 걸어 산티아고에 닿지만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으니 순수한 순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랐는데 순례 중에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카미노를 걷기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성당에 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봇물 터지듯 났습니다. 눈물도 못 닦고 한참 우는 사이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마흔 넘어 맞닥뜨린 불안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서 순례길에 나선 거라 짐작했는데 주님의 뜻은 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주니까요. 하물며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잖아요? 강력한 ‘뻑’을 확인한 저는 그 음성에 기대어 마흔의 사춘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그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확인했음에도 ‘시간의 이빨’ 앞에서 저는 또다시 걱정하고 방황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방법은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며 행하는 것이겠지요. 방법을 알면서도 행동이 적어 탈인데 그럴수록 Just do it! 사랑을 믿고 한 발 내딛는 것. 그리고 계속 걷는 것이겠지요.



한컷 묵상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영성심리 | 올해 서울주보는 청소년 특집 중 하나로 영성심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도 청년,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영적 조언을 전해 드립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김정미 아나마수녀 | 텃짱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를 하시나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혹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성호를 긋는 것은 아닌지요? 그럼, 질문을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에 응답을 받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나요?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요한 10,3) 하고 말씀하신 오늘 복음에 서처럼요.

기도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머무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불안, 두려움, 걱정, 계획, 후회 등을 멈추고 “있는 나다.” 하신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출석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거짓 없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며 아주 진솔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진솔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생활하는 자야가 잠시 멈추어 ‘관찰하는 자야가 되어 한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더욱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틈은 일상에 깊이 몰입해 있을 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무질서를 비춰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자주 빠져들던 구덩이는 무엇이었는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 또 왜 출구 없는 생각 속에 갇혀

같은 자리를 맴돌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인지를 넘어서는 인지’를 통해 가능해지며, 우리는 이를 ‘성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적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일은 영성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돈된 내면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느님의 현존을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짧은 기도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순간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때까지 성령 안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표면적인 일상을 넘어 평소에는 쉽게 닿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현존 안에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잔잔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쉬’입니다. 이러한 쉬를 자주 찾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마음 안에서 이미 조화로운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깐 ‘생활하는 자야’를 멈추고 ‘관찰하는 자야’가 되어 먼저 나의 내적 무질서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분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4월 초, 이란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계정을 통해 “이란이라는 문명 전체가 오늘 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서는 “한 민족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은 진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하셨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교황이 외교 정책에 대해 처참할 정도로 무능하고 범죄(핵 문제)에 너그럽다.”라고 비난했으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되지 말고 본업에나 충실하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황청 대사에게 아비뇽 유수를 거론하며 교황청이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거 프랑스 왕정이 교황권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물리적·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방장관은 펜타곤의 예배에 참석해 시편 58편의 구절을 인용해 다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려 버리소서.”

이 모든 사건과 관련해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어둠(전쟁)에 징집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황님의 이러한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교황이 비판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

다. 현재의 국제 분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한 전쟁의 조건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합법적 권위,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성공 가능성, 비례성. 이를 고려했을 때 다른 외교적 수단이 아직 존재했었다는 것, 국제 질서 및 경제와 중동의 이웃나라와 민간인의 피해가 이익을 압도한다는 것,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라는 판단을 교회는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의로운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강대국의 ‘통제 욕망’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것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특정 국가의 핵 보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 확산을 막는 유일한 길은 ‘압도적인 폭력’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성실한 외교와 대화’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에 교황님께서서는 2026년 3월, 각국 지도자들에게 “죽음의 프로젝트(핵 개발 및 전쟁 계획)를 포기할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됩니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 복수의 칼을 갈고 그렇게 또 전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울부짖습니다. “평화란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로써 확립된다.”, “정의와 반대의 길을 가면서 진리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런 평화는 다만 공허한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지상의 평화 113항, 167항)

| 최근 우리 교회의 흐름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단연 WYD와 시노달리타스입니다. 지난 2023년, WYD 준비를 위한 첫 모임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2027 서울 WYD 준비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회를 1년 앞둔 올해, 서울주보는 WYD와 시노달리타스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헤아려보고자 합니다. 이 지면이 대회를 앞두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WYD, 말씀과 성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여정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무엇을 위하여 전 세계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참석할까요? 청년들은 친교를 나누고, 교회는 청년 사목 활성화 방법을 찾을 수도, 청년을 환대할 줄 아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교회가 더 '젊어지고', 쇠신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효과'입니다. 효과도 목적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WYD에는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제3차 세계청년대회가 열린 1988년 성지 주일 미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이날을 경축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로마로 순례 온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분을 찾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류 역사 안에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계신다는 진리의 충만함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WYD의 시작이 성지 주일이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WYD를 통해 교회는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 성장하고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하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품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WYD의 상징이 '젊은이 십자가', '순례자 십자가'로 불리는 'WYD 십자가'라는 것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여정에서 청년들은 혼자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젊은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고뇌, 그러나

기쁨과 희망 또한 간직하며 이 길을 간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함께 간다.'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은 그 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처음 WYD가 시작되었을 때, 로마에 모인 30만 명의 젊은이들은 성당에서 기도했고, 신앙의 진리를 배웠으며,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 WYD도 미사로 시작해서 3일 동안 교리를 배우고, 순례하고, 고해성사로 하느님과 화해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성찰합니다. 일정의 막바지에는 교황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토요일 밤샘 기도, 그리고 주일 아침 교황님과 함께하는 파견 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WYD는 기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며 하느님과 그리고 형제들의 친교를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인 것이지요. WYD가 단순히 일시적인 '이벤트'로 축소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나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갈까요? 이번 WYD는 시노달리타스 스타일이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WYD가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여정을 탁월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국, 나의 십자가



아키바리에 키아라 | 방송인

일본인인 제가 한국에 온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까만 밤을 밝히는 수많은 십자가를 볼 때죠. 한국은 저에게 하느님께서 사시는 나라입니다.

제 인생에는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스무 살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며 큰 변화를 맞았고, 결혼을 하면서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성가정을 이루길 원하셨고, 종종 “너도 성당에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점이 많아.”라고 하셨어요. 일본의 평범한 불교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은 걸까?’란 의문이 들었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어머니를 따라 성당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제대로 집중도 되지 않는 미사와 교리에 참석하다 보니 ‘하느님 사랑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걸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흔들리던 시간 속에서 하느님은 저를 붙잡아 주고 계셨어요.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았지만 항상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친절했지만, 결국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당 생활을 시작하며 새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인사로 시작한 인연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항상 나누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를 시작한 뒤로 마음속에 자리했던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기도 안에서 위로를 보내주셨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

셨으니깐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큰아이가 피아노 콩쿨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힘들었는지 “엄마, 내일은 미사 안 가고 놀러 가면 안 돼?”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상은 너의 노력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아닐까? 그럼 내일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어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전의 저였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며 저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게 “그렇네? 감사 인사 드리러 성당에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인으로서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곧 한국에서 산 세월과 일본에서 산 세월이 같아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한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길어지겠죠.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은, 저를 사랑의 길로 이끄시고자 한 하느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 길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이자 가장 큰 은총이니깐요.

최근 큰 아이는 첫영성체 교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이끄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에게 제가 받았던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글·구성 김보경 요안나 프란체스카 | 작가

오늘(4월 26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 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소 주일 교황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 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6년 4월 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 1993년 4월 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17년 4월 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 2021년 4월 27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90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학교 사목국 · 사회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 알림

151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마음의복讎분당': 서울교구(북녘지역) 연안 분당 5월 5일(화)은 어린이날로 인해 화해미사가 없습니다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교육명: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근력 키우기 (윤제연, WYD 준비를 위한 이탈리아어 배우기(류젠탐) / 문의: 02)727-2126

2026 예언서 5월 특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사: 조창수 신부
 때, 곳: 5월 1일(금)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내용: 유배 전 예언서 특강
 2027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피정: 3월 9일~23일 / 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8(문자) / 가톨릭 성경영성아카데미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접수 안내

신청: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자세한 순례코스 및 안내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때	코스	비고
5월 2일(토)	1코스 말씀의 길(명동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5월 5일(화)	2코스 생명의 길(가회동성당-중림동 약현성당)	.
5월 9일(토)	3-1코스 일치의 길(당고개 순교성지-절두산 순교성지)	.
5월 13일(수)	저녁애 순례길(7017 코스)	저녁 7시 시작
5월 23일(토)	3-2코스 일치의 길 (노고산성지-삼성산성지)	일부 구간 대중교통 이용
5월 27일(수)	저녁애 순례길(강경궁 코스)	저녁 6시30분 시작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미사

때, 곳: 5월 11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1

서울대학교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5월 7일(목) 14시~15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포스트홀) / 집전: 우석제 신부(과테말라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형구 개인전: 1전시실
 조여주 개인전: 2전시실
 이선수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 1일(금)~10일(주일)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5월 모임

신청: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s://culture.catholic.or.kr>) 참조 /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
 주제: 묵주기도 -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 바라보기(회비 없음)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때, 곳: 5월 6일(수)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우리능 활동가 연례연수 불강좌

대상: 서울 우리능 각 분당 생활공동체 활동가, 우리능 회원, 관심있는 신자 / 주제: '밥 : 心'
 때: 5월 13일~27일, 매주(수) 오전 10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회비: 4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능본부) / 문의(신청): 02)727-2275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5월 3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5월 4일(월) 13시30분~16시30분

제109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선뜻, 나로 시작되는 나눔
 지향: 공동의 집,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때, 곳: 4월 30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주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486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명동 가톨릭회관 CPE센터: 02)727-2434
 가톨릭중앙의료원 CPE센터: 02)3147-9428
 수원 성빈센트병원 CPE센터: 031)249-795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세미나

취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50주년 기념 여성복지분야 세미나
 때, 곳: 4월 28일(화)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주제: 생명을 돌보는 여성들(힐과 위엄이 그 아내의 웃,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 잠인 31.25) / 내용: 기조강연(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성경적 돌봄의 유형: 연대, 정의, 그리고 회복 / 감영신 수녀), 종합토론, 질의 응답
 문의: 010-4350-1601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2027 서울 WYD 행사 안내

행사명: 철조망 십자가 제작 프로젝트 참여
 주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대상: 서울대학교 소속 분당 신자 공동체 또는 교구인준 단체(14세 이상) / 곳: 명동대성당 마당 우측
 때: 4월 19일~2027년 4월 4일 매주(주일) A파트 13시~14시 · B파트 13시30분~14시30분 / 접수기간: 매일 1일~10일
 문의: 02)2230-2058(events@wydseoul.org)
 신청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 전송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성령미사·강의·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백준호 신부

제5차 미리내 성령 묵상 피정

강사: 한연흠, 한승주, 이관배 신부 외
 때: 6월 19일(금) 13시~21일(주일) 15시 / 회비: 22만원
 곳: 미리내 묵상의 집(주최) / 문의: 010-4416-6445

청년 해외 성지순례(이태리 로마·아시시 등)

대상: 미혼 남녀 청년 신자 / 문의: 010-5715-1702
 때: 7월 18일(토)~29일(수) / 7월 30일 도착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5월 2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 15일~18일·6월 19일~22일·7월 17일
 ~20일·8월 14일~17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미사: 손희송 주교 / 강사: 김재덕 신부, 한연흠 신부
 때, 곳: 5월 2일(토) 9시~17시30분, 남양주체육문화
 센터(남양주 다산지금로 9) / 회비: 5천원(떡케트 구입)
 문의: 010-9697-9004, 010-9297-8821

부활 축제 치유 대피정

강사: 정순택 대주교, 정월기 신부, 송봉모 신부,
 김성기 신부, 이창진 신부, 양창우 신부
 때: 5월 8일(금) 18시~9일(토) 17시30분(1박2일)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숙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성모성월 대피정

기도회, 묵주기도, 율동, 찬양, 고해성사
 때: 5월 10일(주일) 13시~17시(미사 16시)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 성령봉사회 하차
 문의: 010-9927-2898, 010-5259-8234

예수회 말씀의 집 영신수련 피정(식별·선택)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 집

8월	5월 1일~10일, 8월 16일~25일
기타	5월 17일(음악 피정), 5월 22일~25일(디지털 디톡스)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5월 29일(금)~31일(주일)
성경 원독	6월 19일(금)~27일(토), 7월 24일(금)~8월 1일(토)

피아골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7일~19일	원주·춘천	6월 5일~6일
홍도·흑산도	5월 6일~9일	대구교구	7월 10일~11일
홍성남 신부	북해도 8월 24일~27일, 아키타 5월 25일~29일		

부활 감사 대피정(지혜의 샘)

강사: 김대영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때, 곳: 4월 29일(수) 10시~17시, 인천교구 지혜의샘
 (부천시 경인로61-1, 중동역5분 거리) / 점심 무료 제공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2026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희망에 너희 마음을 열어라”(메시지 604번)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강의: 오창수 신부(전국 체나콜로 부대표 사제)
 때, 곳: 5월 5일(화) 오전 9시30분~오후 5시, 동성
 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문의: 010-7142-0513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연합셀 대피정 첫토요일 신심 미사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순례 한국순례 기념 및 연합셀 대피정

때, 곳: 4월 30일(목) 12시~16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강사: 신동규 신부(부산교구)
 미사 주례: 구요비 총대리 주교

2) 첫토요일 신심 미사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5월 2일(토) 9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때: 와호메밀꽃길 5월 15일~17일, 수국길 6월 19
 일~21일, 한라산숲길 7월 17일~19일, 우도 바닷
 길 7월 24일~26일, 마라도 순례 7월 3일~5일·7월
 10일~12일·8월 21일~23일, 추자도 성지순례 6
 월 4일~7일·6월 8일~11일·9월 4일~7일·9월 11일
 ~14일·10월 31일~11월 3일·11월 14일~17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제주의 봄 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철쭉·자연순례 5월 8일~10일·5월 11
 일~13일·5월 12일~14일·5월 21일~23일·5월 28
 일~30일(성모의 밤)·6월 5일~7일·6월 13일~15일
 ·6월 20일~22일·6월 23일~25일(차귀도),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5월 16일~19일·5월 31일~6월 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가정선교회 5월 피정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1층·3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5월 2일(토) / 김태광 신부
성모성월	5월 6일(수) 9시30분 / 회비: 1만원
1일 대피정	송봉모 신부,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 회복을 위한 전인적인 치유 피정	5월 16일(토) / 윤창호 신부

예수교회회 서울 명성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5월 1일 10시~15시30분
치유침묵기도 피정	5월 29일(금)~31일(주일)
성경 피정(시편 아가서)	6월 12일(금)~14일(주일)
청년 명성 캠프 (주님과 함께 명대리기)	6월 16일(화)~19일(금), 오상영성원(강원도 양양)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ICPE 5월 흡송기도회

때: 5월 17일 오후 3시
 곳: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문의: 카카오톡 폴친(ICPE), 010-5320-0419

교육

미사 전례를 위한 오르간 교육 / 문의: 010-9468-7660
 곳: 대치2동성당 / 주최: 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회원 모집 / 문의: 02)324-0852
 전통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 lukeglass.com 참조

시니어 종이접기인생노래교실

인생노래교실, 영어ABC기초반 과정 / 선착순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새천년복음화학교 154기 1단계 개강

때, 곳: 5월 21일(목) 10시, 가톨릭회관 527호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찬미받으소서’ 여정 참여자 모집

대상: 청장년 개인 및 단체 / 내용: 땅의 돌봄 및
 생물종 다양성 회복, 생태영성교육
 때: 5월 18일부터 / 문의: 010-6561-8835 찬미받
 으소서 생태공동체(인제군 남면)

성서인문학-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때: 5월 19일·6월 9일·7월 7일·8월 4일·9월 22일·10월
 6일·11월 17일·12월 1일(화) 10시~14시30분(총 8회기)
 곳: 명동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전진상영성센터

가톨릭 상상레음악연구소 특강

주제: 죽음 앞에 선 인간(신앙인의 영적 죽음)
 강사: 손영순 수녀(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
 답했다 저자) / 회비: 1만원
 대상: 개인 및 본당 단체 / 문의(접수): 010-3211-
 8941 성음악위원회 상상레음악연구소
 때, 곳: 5월 9일(토)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5월 7일(목)~8일(금) 9시30분~18시, 여의도
 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1804, 2558
 4월 30일(목)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접수 6만원
 계좌: 우리 832-04-100745 가톨릭대학교여의도
 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톡채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 30일(목)까지 / 전형일: 5월 16일(토)
 문의: 02)705-8668, 9

모 집 전 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곳: 5월 20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시30분(6주), 온라인 Zoom / 5월 14일까지 접수
 문의: 02)2135-9398 한국CLC

평화지킴이(HIPP) 입문 / 문의: 010-3384-0951
 때, 곳: 7월 2일(목) 14시~4일(토) 14시, 제주 성이시돌피정의집 / 계좌: 농협 301-0197-3172-01
 진행자: 김석봉, 최정애 / 회비: 25만원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HIPP진행자모임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명동대성당 무자카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5학년 남아(세례자 또는 예비세례자)
 지원 방법: 010-7372-0808 (문자 문의)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5월 1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국악인을 위한 국악 미사(우리백소리)
 때: 매주(주일) 오후 6시 / 소리, 연주 참여 가능
 곳: 독립문 무악동 선교본당 / 문의: 010-2949-1362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4월 28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끈뽀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 미사
 때: 5월 2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5월 4일(월)~6일(수) 11시, 본원(미아동)
 문의: 010-8684-1360

4월 영화 치유 미사(가톨릭영화인협회)
 내용: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사전 접수)
 때: 4월 29일(수) 오전 10시30분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오기선요셉 장학회 월례 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4월 30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웅기장학회 월례 미사
 때, 곳: 4월 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박요한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고준석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바가지 없는 하느님의 쉼터
 문의(예약): 010-4097-0090 / 홈페이지: www.soulstay.at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성베네딕도회 청년문화영성 북콘서트·음악 피정
 때, 곳: 5월 2일(토)~3일(주일), 왜관 수도원 / 회비: 11만원
 문의: 010-9643-2135 (문자) 성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위급한 여성의 쉼
 위급한 여성들의 쉼은 5일 무료입니다
 문의: 010-8563-6875 (문자 부탁드립니다) 성심의 프란치스코수녀회 서울공동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모래놀이치료: 010-7153-0330

바보의나눔 '추모·유산기부' 캠페인
 고인을 위한 추모기부는 사랑을 남기고, 유산기부의 약속은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기부 문의: 02)727-2507

가톨릭여성연합회 4월 정기월례회 / 문의: 02)778-7543
 미사·특강: 박준양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수)
 주제: 성모 마리아의 호칭에 관한 신학적 성찰
 때, 곳: 4월 28일(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장충동 / 문의: 010-9139-1937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임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 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 갈등, 대인기피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국가지원 바우처 사업 해당 기관

직원모집

(사)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모집
 분야: 국내 사회복지 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5월 11일(월) 18시까지 서류 접수(ckna@caritas.or.kr)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직원 모집
 접수: 5월 10일(주일)까지 / 분야: 영상PD, 편집, 기자, 총무, IT, 아카이브, 광고영업, 선교후원, 기술
 문의: 02)2270-2116 / 채용 홈페이지 참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모집
 분야: 영상 홍보, 번역, 행정 사무(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4월 30일(목)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bck.kr) 문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기부후원, 커뮤니케이션부, 순례자부, 봉사자부, 행사총괄, 운영총괄부 등
 모집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소통하기-공지사항에서 확인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ydseoul.org
 이메일(recruit@wydseoul.org) 문의·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세태근무자 모집
 곳: 강남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세태근무자 1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각 1부 / 이메일 문의
 5월 3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서울 수녀원	010-8563-6875
예수회	5월 9일(토) 15시	예수회 관구본부	010-2876-1540(vocation@jesuit.kr)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월 9일(토)~10일(주일)	수도원(대전 목동)	010-6608-3217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광진구 아차산로 32길 13	010-9695-1366 로메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백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성모 성월 추천 도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루카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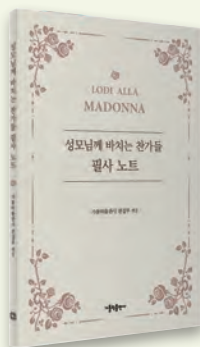
성모 성월 추천 도서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

코스탄테 베르셀리 외 지음 | 2만4천원

천 년의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성모님을 향한 인간의 찬미

성모 성월에 꼭 읽어야 할 성모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미와 기도



시간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 필사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만원

손끝으로 기도를 피워내는 시간 성모님께 바치는 30일의 필사 봉헌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에서 엄선한 동·서방 교회의 기도문 필사



성모 성월 추천 도서

철학자, 믿음의 여인을 묵상하다

베른하르트 벨테 지음 | 1만6천원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10가지 시선

하느님의 위대한 은총을 신뢰한 성모 마리아를 묵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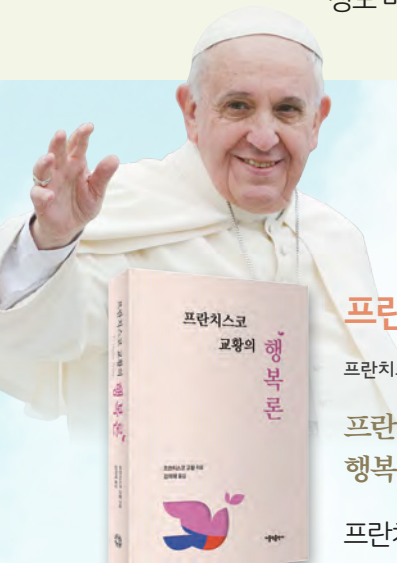
시간

해인의 바다

이해인 지음 | 2만6천원

깊은 서랍 속에서 비로소 꺼내 놓는 이해인 수녀님의 ‘영혼의 일기’

사계절을 따라 펼쳐지는 영적 여정, 주님을 향한 진솔하고도 절실한 고백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 1주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2만7천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남기신 행복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을 위한 8가지 진리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 희망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3만4천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단 하나의 공식 자서전

선종 1주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구입문의 02) 6365-1888



“성소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명동대성당의 본당 신학생은 4명이고, 예비신학생은 4명입니다.

《 착의를 하고 나서. 》



◆ 신학과 4학년 장현희 미카엘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8일에 착의를 하게 된 장현희 미카엘 신학생입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착의를 하게 된 소감을 나누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착의를 하게 된 소감을 준비하며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 그래도 역시 착의식을 하며 느꼈던 순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3학년의 마지막을 지내며 이제 곧 착의식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원감 신부님의 질문에 ‘큰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사제가 되어가는 과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마음은 착의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단을 입고 성전 뒤에서 예식을 준비하면서도 떨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마음이 예식이 거행되며 바뀌게 되었습니다.

착의 예식이 시작되고 예식이 거행될수록 점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수단과 증백의가 제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저에게 입혀 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착의를 준비하며 함께 입학한 동기 형들과 다른 교구들의 동기들이 먼저 수단을 입은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나도 이제는 입을 때가 되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착의를 준비하면서 기쁨과 겸손함의 자세 보다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마치 예식 속 복음의 말씀처럼 이제는 착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내가 열심히 해 왔기에 착의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옷을 입으려 하였던 저에게 당신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통해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제가 아직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는 철부지였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랑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명동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저희 신학생들을 사랑과 관심, 기도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한 저희 철부지 같은 신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사랑과 기도 안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교 실습을 다녀오고 나서. 》



◆ 신학과 3학년 윤성원 미카엘

작년 저는 2025년 6월 15일 부터 11월 15일까지 몽골로 선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실습을 떠나기 전, 제 안에 떠오른 선교의 모습은 현지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구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 도착해 축구장을 도색하기 위해 처음 붓을 잡은 순간, ‘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후 몽골에서 지낸 다섯 달 동안 저는 비닐하우스 작업과 농구장 건설 등, 제가 생각했던 선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노동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이게 무슨 선교 실습이야, 노동 실습이지.’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묵상하던 중에, 다른 관점에서 그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지는 못했지만, 제가 세운 농구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성당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선교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커서 성당의 문을 두드리고, 미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했던 그 노력들이 하느님의 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쳐보니 그 모든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같이 지내고 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 명동대성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회원 모집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성당마당에서 성소후원회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신학생과 예비 신학생, 수도자 양성을 위한 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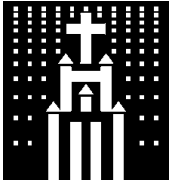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555017-01-007

명동성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의 사제 · 수도자 지망 성소자들과 후원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품(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양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이사악 세베로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36	봉헌 : 55, 221, 512	성체 : 197, 183, 175	파견 : 132
-------	----------	-------------------	--------------------	----------

◎ 성소 주일 2차 헌금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 주일」 인 오늘은 성소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제63차 서울대교구 성소주일 행사 및 미사

- 일시 : 4/26(일) 13:00 ~ 17:00
- 장소 : 명동대성당 및 교구청별관 일대
- 대상 : 청소년 및 청년 성소자
- 사제 · 수도자 성소계발 및 홍보를 위한 참여마당
-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미사 (오후 2시 / 대성전)
- ※행사시간 차량 진입 불가

◎ 부활 구역미사

- 일시/장소 : 4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 소성당
-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소성당)
- 미사 후, 다과 및 친교 (만남의 방)
- ※명동, 회현, 남산, 인현, 필동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신자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모임 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총구역장 ☎ 010-2222-1944

◎ 5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2호	한 크리스티나 수녀

- 매주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5/3(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
- 첫 수업 : 5/10(일)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만 19세 이상만 신청가능
- 준비물 : 교재 및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4/5(일) 천사 모금액 18,664,000원
본당지원 1,866,400원
- 4월에 ‘마푸토 대신학교’, ‘리칭가교구 소신학교’에 천사의 사랑기금(20,530,400원)을 전달 예정입니다.
- 5/3(일)에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인 ‘마자렐로 보호치료센터’, ‘한가족’, ‘나무야’, ‘예담의집’을 위한 천사가 되어주세요.

◎ 2026년 명동대성당 영성특강 II - 예수마음기도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고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도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나 사랑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성소 주일, 1993/5)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함께 걷는 발걸음은 걸음마다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모 성월 기도회 》

5월 성모 성월을 맞아 매주 월요일 성모동산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함께하시어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우천 시 기도회 취소·묵주 지참)

- 일시 : 5월 4일, 11일, 18일, 25일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미사 후

◎ 성모 성월 꽃 봉헌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5월 1일(금)은 노동절로 본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미사와 고해성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거행됩니다.

◎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지휘자 모집

서류접수 : 이메일 mdsdca@catholic.or.kr 접수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고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13-4/19).....17,872,000
 - 부활 제 3 주일 헌금.....42,738,219
 - 감사헌금 (4/13-4/19).....1,551,000
- 송 소피아 / 양 크레센시아 / 윤 요셉 / 임 사무엘
정 엘리사벳 / 최 로사리아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육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월	07:00, 18:00	토-일	10:00 - 20:00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화-금	07:00, 18:00, 19:00	화-금	11:00 - 20:00	
평일미사		토	07: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월-토	10:00	Sun.	08:30 - 08:50	
성지미사		월-토	10:00	Sat.	16:00 - 17: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